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이병수



애플 최고경영자(CEO)였던 스티브 잡스는 대학에서 서체를 공부했고 그것이 훗날 애플 컴퓨터의 아름다운 활자를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을 많은 독자들은 기억할 것이다.

별 대우를 받았던 흑인들에게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다양성(diversity)의 문제를 다뤘지만 근래에는 다양한 배경(인종, 성별, 소득, 종교 등 여러 측면)과 사고 방식을 가진 사회 구성원이 어떻게 갈등을 해결해 가면서 살 것인가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은 아니다. 대학교수들은 수업 중 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어도 학생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백인이 대부분인 대학이나 교수가 종신 계약(테뉴어)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교수는 학생들의 수업평가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 정치인들은 한치의 양보 없이 자신들의 선명성과 위대함만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매스미디어가 다양한 후보와 그들의 생각을 비교 분석하는 교육의 광장을, 또한 여러 의견이 교류할 수 있는 대화의 광장을 제공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독자 자신이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도록 복수의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구해야 한다.

다양성은 왜 필요한가

는 사회환경을 반영해서다. 작은 통계에 의하면 하와이와 캘리포니아에서의 백인 비율은 24.7%, 57.6%에 그쳤고, 또한 2050년에 이르러 백인의 비율은 미국 전체 인구의 반이 안 되는 실정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국가간 직접투자, 교역 증대, 고용시장의 국제화로 미국 학생들은 전세대에 비하여 자주 외국문화를 접촉하고, 외국인과 공동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느니다. 아름답다고 평판이 난 곳에 여행하는 것도 그런데 하물며 낯선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 또는 평소 애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는 어땠겠는가? 자신과 상반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의 생각은 열린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서 이치 가 안 맞는 것 같고 여지를 쓰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 서로간에 대화할 때 자기 생각만 외치고 상대방의 의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영원히 평행선을 그을 뿐 절대 남의 생각을 진정으로 이해할 기회는 없을 것이다.

예전에는 미국 대학들이 역사적으로 차별 대우를 받았던 흑인들에게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다양성(diversity)의 문제를 다뤘지만 근래에는 다양한 배경(인종, 성별, 소득, 종교 등 여러 측면)과 사고 방식을 가진 사회 구성원이 어떻게 갈등을 해결해 가면서 살 것인가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다양화는 항상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반감을 사는 경우도 있다.

미국과 한국에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지만 다양화는 항상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반감을 사는 경우도 있다.

우리는 자신과 상반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과 접촉했을 때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느낀다. 그래서 끊임없이 타인의 생각을 음미하기보다는, 무시하거나 자신에게 편한 식으로 해석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좋은 약이 입에 쓴 것처럼 우리는 입에 폭막하는 것만 취해서는 안 될 것이다. <美 앨런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료 칼럼



김수완

당뇨환자, 각별히 돌보세요

생기며, 뼈가 약해지고, 영양 상태가 불량해지며, 신경 손상 등이 나타난다. 또한,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아지게 된다.

절해야 한다. 무분별한 약물의 복용을 조심해야 하고 진통소염제, 항생제, 이뇨제와 방사선 조영제 등의 사용시에는 신장전문의와 상담을 필요로 한다.

신장은 적갈색의 완두콩 모양으로 대략 어른 주먹만한 크기로, 우리 몸속에서 척추를 사이에 두고 등쪽에 2개가 서로 맞은편에 놓여있는 장기이다. 신장은 자동차 연료 필터 또는 부엌 싱크대의 찌꺼기 제거장치처럼 우리 몸속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건강한 뼈와 적절한 췌장, 혈압 조절에도 영향을 미치며 수분 및 전해질 조절, 혈압 조절에도 관여하는 매우 중요한 장기이다.

만성신장병은 신장의 손상으로 정상적인 신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이 감소한 상태를 말한다. 만성신장병의 3대 원인은 당뇨병, 고혈압, 만성 사구체신염이다. 국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 3명 중 1명 꼴로 만성신장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투석을 해야 하는 말기신부전 환자 2명 중 1명은 당뇨병이 원인이다.

당뇨신장병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질환의 진행을 늦추고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서 맞춤형 관리가 필요하다.

당뇨신장병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질환의 진행을 늦추고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서 맞춤형 관리가 필요하다.

기고



항병하

9·11 10년, 다문화 갈등 미리 막자

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를 완전히 근절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최근에는 다문화주의를 표방해 온 서구 선진국들에서 연이어 다문화사회와 관련된 테러 사건들이 발생하여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였다.

자유와 평화 그리고 인권의 도시로 상징되는 광주·전남은 다문화가정과 그 2세들에게 모범적인 다문화사회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먼저 헤아리고 함께 화합하며 포용하고 이해하는 선도 지역으로 나아가야 우리 지역의 기본정신인 평화와 인권과 화합도 다른 도시뿐만 아니라 다문화 공동체사회의 전체로 확산될 것이다.

중립과 평화 그리고 인권의 도시로 상징되는 광주·전남은 다문화가정과 그 2세들에게 모범적인 다문화사회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토크쇼 출연 연예인들 폭로성 발언 폐해 많다

연예인들이 방송에서 신상에 관한 이야기를 토크쇼 형태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아주 많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들의 특징 중 하나는 연예인들의 발언이 가히 '폭탄 발언' 수준이다.

오른다는 점이다. 연예인들이 과장이거나 거짓이 섞인 발언을 하는 이유는 자신의 이용가치를 높여려는 마케팅 때문이다.

소년들에게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를 괴롭히는 장면이 찍히고 불만을 표시하는 장면이 나오면...'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리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시설

벌써부터 14대 총선 불·탈법 난무해서야

내년 4월 11일 치러지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서 과열·혼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전남도 내 일부 지역에서 벌써부터 불·탈법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다 추석 명절을 맞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른 혼탁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선관위의 선거가 다가오면서 과열·혼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전남도 내 일부 지역에서 벌써부터 불·탈법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다 추석 명절을 맞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광주시·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선과 관련해 지금까지 적발된 선거법 위반사건은 13건에 이른다. 광주시 선관위는 최근 광산구에서 집회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사전선거운동 3건을 적발했다.

부정선거의 근절은 후보자에 앞서 유권자의 공명여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권자가 급물사나 함을 들을 받지 않는다면 후보자가 줄 수야 없는 법이다.

전남도 선관위도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특정후보를 지지한 B씨 등 9건을 적발, 이 가운데 1건을 수사 의뢰하고 8건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지역별로는 무안군과 목포, 순천, 광양이 각각 1건씩이고, 영암 2건, 영광 3건 등이라고 한다.

‘정치꾼’이 아니라 유능한 ‘일꾼’을 뽑아야 지역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익히 경험해 온 바가 아니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선거의 감시자로서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자를 고발하는 의의마저 보여야 한다.

내년 총선은 대선과 함께 향후 4년간 지역이 전진하느냐, 퇴보하느냐의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유권자의 깨끗한 선거 의지가 지역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유념해야 할 것이다.

광주 교육비 지원 전국 ‘꼴찌’ 교육도시 맞나

광주시의 1인당 교육 지원비가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의 '2010년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투자액 지원 현황'에 따르면 광주시는 '1인당 교육 경비'가 3만1300 원에 불과해 16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였다. 이는 전국 평균 16만2500 원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강원도 33만4200 원의 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지역교육의 경쟁력 향상은 전적으로 지자체의 지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광주시의 지역교육에 대한 환경의 서울의 1.31%, 1.01%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다.

광주시의 기초자치단체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남구와 광산구의 1인당 교육경비 지원액은 각각 1만500 원, 1만400 원에 그쳐 인천 옹진군의 119만3300 원의 0.8%에 지나지 않았다. 시·도별 총예산 대비 교육경비투자 비율 역시 광주는 0.25%로 전국 꼴찌였다.

물론 지자체가 교육투자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재정 자립도가 낮고 세수(稅收)가 적은 지자체로서는 실제로 내용을 돈이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광주시의 재정상태를 감안하면 교육지원 경비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를 ‘교육 도시’ 운운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지역교육의 경쟁력 향상은 전적으로 지자체의 지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광주시의 지역교육에 대한 환경의 서울의 1.31%, 1.01%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다. 지자체의 교육지원비는 급식시설과 체육·문화공간 설치 등 교육환경 개선에 쓰이는 돈이다. 따라서 광주의 교육

無 等 鼓

유신시대의 전두환 정권시절,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 보안대, 기무사 등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민주화가 되면서 이들 기관은 뒷전으로 물러났지만 검찰이나 경찰, 국세청은 여전히 권력기관으로 불린다.

세무서 1일 병에 민원봉사실장으로 활동한 바 있어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미국에선 국민들에게 가장 무서운(?) 정부기관이 연방수사국이나 검찰이 아니라 국세청이라고 한다. 영화 ‘블레이드’ 시리즈로 국내에도 많은 공인이다.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크다. 게다가 세무서 1일 병에 민원봉사장까지 경험했다. 회당 1000만 원이 넘는 출연료를 받고 수익원대의 수입이 있는 연예인이 세금내지 않는다면 팬들의 허탈감이 더 할 것이다.

그들도 나를 변명이라도 있었지만 연예인은 인기를 먹고 사는 공인이다.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크다. 게다가 세무서 1일 병에 민원봉사장까지 경험했다. 회당 1000만 원이 넘는 출연료를 받고 수익원대의 수입이 있는 연예인이 세금내지 않는다면 팬들의 허탈감이 더 할 것이다.

탈세와 연예인



대다수의 소시민들이 꼬박꼬박 내는 세금은 국가재정의 근간이 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세금을 충실히 납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공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무리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최재호 정정부 차장 lion@kwangju.co.kr

Table with Kwangju Ilbo header,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rates for various regions (Gwangju, Jeolla, Jeonnam, etc.).